

# 論述考查를 치루고 나서

## —그 意義와 問題點—



참	석	崔	正	薰(延世大 心理學科)
		朴	鍾	哲(崇田大 國文學科)
		全	成	連(高麗大 教育學科)
		洪	章	鶴(永一高 國語教師)
사회 및 정리		韓	宗	哲(延世大 心理學科)

일 시 : 1986년 2월 6일

장 소 : 본 협의회 회의실

司 會 이번에 大入論述考查가 처음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綜合的인 評價나 어떤 處方을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입시가 지니는 重要性에 비추어 볼 때, 이번 大入論述考查의 실시에서 나타난 몇 가지 問題點들을 분석해 보는 일은 매우 뜻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여러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대학입학교사에 논술고사가 들어오게 된 背景이나 그 意義에 대하여 앉으신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成連 해방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는 큰 骨格만도 아홉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뀌어진 것이 1981년인데, 그때부터 大學入學學力考查와 高等學校內申制의 並行實施가 1985년까지 계속되어 오다가 금년에 다시 論述考查가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그렇게 된 배경을 저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學生選拔에 있어서 대학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에 대한 反論이 대두되었다는 점입니다. 1980년 7월, 國保委의 교육정상화 方案에 따라 입시에서 대학별 本考查가 폐지되면서 지금까지 대학입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권한과 自律性이 없었습니다. 둘째는 대학입학 學力고사의 여러 가지 制限性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採點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客觀式 문제 일변도로 출제되어 왔기 때문에, 필요한 高次的 精神能力의 측정을 무시해 왔던 점입니다.

다. 세계는 國家考査의 性格變化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1969년에 실시되었던 大學入學豫備考査는 資格考査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 후에 학력고사트 바뀌어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자격고사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단지 글자 그대로 學力考査로서의 기능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내제는 현행의 學力檢査는 單一點數基準이므로 여러 가지 副作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학력고사 성적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데에서 오는 부작용, 예컨대 機會主義의 팽창, 대학간, 학과간의 序列化 등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입시제도가 高等學校 教育에 미치는 否定的인 영향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표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教育課程의 非正常的인 운영, 情緒教育 및 人格교육의 경시화, 그리고 自律的인 學習態度의 약화 등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대학입시에 變化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의 논술고사는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崔正薰** 대학입시는 本質的으로 그 대학에서 관장하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간의 大學入試制度의 變遷을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에 따른 문제점들이 하나의 社會的인 問題로 바뀌어질 때마다 입시제도도 바뀌어졌다는 느낌입니다. 처음 大學別 考査가 실시되었을 때에도 대학입시에 따른 여러 가지 雜音이 나타나, 이것을 國家가 관리하게 되었

으나, 또 다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高等學校 內申制을 도입하게 되었고, 다시 금년에 論述考査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입시에 따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큰 작든간에 制度上에 變換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981년부터 대학입시에 대학이 아무런 關與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때 대학이 스스로 그 權利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학이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批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大學入試制度政策은 그 어느 한쪽의 責任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과거의 經驗을 바탕으로 대입제도에 대하여 신중하게 對處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국가고사인 大入學力考査와 高等學校 성적인 內申制에 論述考査가 도입됨으로써 국가, 高等學校 그리고 대학이 직접적으로 關與하게 되는 대학입시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입시에 論述考査가 도입되어, 大學이 직접적으로 대학입시에 關與하게 된 것은 앞으로 대학입학제도의 自律化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朴鍾哲** 두 분 선생님께서 論述考査의 배경에 대하여 教育政策的인 측면에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



“논술고사가 도입되어 대학입시에 대학이 직접적으로 關與하게 된 것은 앞으로의 대학입시제도의 自律化를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최정훈 교수)

등학교 教育을 反省해 볼 때, 高等學校에서 학생들이 배워 온 과정이 과연 대학에 들어와서 어떤 學問을 할 수 있는 준비 教育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고교 教育이 전부 대학입시 위한 教育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고교 教育과 대학 教育의 連繫性에서 볼 때, 지금까지 高等學校 教育은 대학입학이란 資格을 따기 위한 選手養成 教育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만일 이러한 教育이 계속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不幸한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대학입시는 학생들의 思考의 單純化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사고의 단순화는 결국 인간의 단순화, 즉 機械的인 人間만을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高等精神能力을 요구하는 이번의 論述考



“지금까지의 대학입시는 학생들의 思考의 單純化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자칫 인간의 단순화, 즉 기계적인 인간만을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종철 교수)

査는 매우 그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司 會 大學의 門은 좁고 대학에 들어오려는 인구가 많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입시제도라도 도입된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 대학입시가 過熱됨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社會的인 問題로 등장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의도에서 객관식 문제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즉 대학입시에 있어서 結果의 客觀性이나 信賴性에만 치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시험의 妥當性의 문제가 소외된 것 같습니다. 이번 논술고사는 대학입시에 있어서 그 妥當性을 고려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논술고사가 가지는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대학입시에서 이 두 가지 문제,

즉 信賴性 혹은 客觀性의 문제와 妥當性의 문제 중 어느 하나를 완전히 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유지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논술고사를 高等學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洪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洪章鶴 1986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 論述考査點數가 반영된다는 文敎部의 발표가 있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는 특히 國語敎師들에게는 하나의 폭탄선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논술고사라는 定義도 매우 모호했고 또한 總査 定點數의 10% 정도라고 하면, 이는 약 57점이 되어 單一科目으로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물론 고교 교육의 정상화나 大學敎育의 正常化라는 측면에서 보면, 논술고사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1년이라는 準備기간은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하기에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論述이라는 것이 集中的인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입시라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不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데다가 대학의 이에 대한 具體的인 試案도 발표가 되지 않아서 교사는 물론 학부모나 학생들 자신까지도 매우 불안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2학기가 가까이 되어서 6월쯤에 각 대학의 논술고사 配點이나 出題

類型이 나오기 시작하였읍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번 각 대학의 논술고사의 배경이 의외로 그 幅이 좁았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時間的 여유나 첫번 실시라는 점에서 처음에 가졌던 불안이 차츰 적어졌읍니다. 작년에 각 고등학교에서의 논술고사에 대비한 교육은 우선 국어교사들이 원고 쓰는 방법, 문법상의 문제, 주어진 논제를 分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主題를 놓고 써 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시켰읍니다. 물론 이러한 능력이 단기간의 훈련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는 없읍니다만, 그래도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였읍니다. 아마도 대학입시에 論述考査가 들어감으로 해서 고교 교육은 물론 중학교나 국민학교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객관식 시험에 적응시키기 위한 교육방법에만 모든 시간을 소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책을 읽을 경우에는, 불러서 야단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학생은 결국 「죄와 벌」을 읽은 게 죄가 되고 벌을 받은 결과가 되었던 것이 오늘의 상황이었읍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교육의 양상이 바뀌어지리라 기대합니다.

司 會 洪선생님께서 논술고사에 대한 定義가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査교

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朴鍾哲** 흔히 논술과 作文을 혼동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論述과 作文이라는 것이 대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개념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論述이라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면 그 下位範疇로 作文(이때 文은 文章을 가리킴)이 있는 것이지요. 논술과 작문이 절대로 同一化할 성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논술을 정의하면 “意見을 論하여 陳述한다”라고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견을 論한다는 것은 어떤 주어진 命題에 대하여 論理的으로 推理하고 分析하고 綜合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陳述한다는 것은 말로 하건 글로 하건 자기의 의견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表現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학입시에서 論述考査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測定하여야 하는데, 혹시 논술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쉽게 생각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作文과 같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욱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지적 능력으로만 생각하던 옳지 않다고 봅니다.

**司會** 다음으로 이번에 각 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논술고사의 點數配點이 3%에서 5% 미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점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全成連** 대학입시에 있어서 논술고사가 차지하는 比重으로 본다면, 10%인 57점을 모두 反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 경우 單一科目으로의 57점이 매우 크게 좌우하여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논술고사 성적이 대학의 當落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要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1년 정도의 준비기간밖에 없었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過渡期的인 조치로서 대부분의 대학이 3~5% 내외로 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배점이 上昇될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의 論述考査配點은 여러 가지 與件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崔正薰** 이번 논술고사 점수의 反映率은 어떤 視角에서 보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모집단위인 학과를 중심으로 본다면, 다그린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대학의 경우는 合格者의 점수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同質的인 集團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자(그 중에 눈치작전도 있지만)들의 學力考査點數의 범위와 高等學校 內申成績의 등급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10~15점의 논술고사의 점수는 그렇게 적었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合格點數를 중심으로 1~2점간의 범위내에 심한 경우에는 몇십 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마도 대학입시에 논술고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고교교육은 물론 중학교나 국민학교 교육에도 좋은 영향을 주리라고 봅니다” (홍장학 교사)

논술고사의 점수가 決定的인 요인이 됩니다. 예컨대 50명을 모집하는 학과의 경우 합격선 1, 2점 내의 범위에 15, 6명이 集中되어 있다면 이는 합격자 전체의 약 1/3 정도가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논술고사의 點數 反映率을 높여 나가야 하는 데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朴鍾哲** 논술고사 점수의 반영률을 줄인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논술고사가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客觀性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公正性을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겠는가, 사실 대학 자체에서도 그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基本的인 資料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苦心한 것 같습니다.

**洪章鶴** 앞에서도 말씀드렸을 니다만, 저희 고등학교 입장에



“논술고사 실시 후 대부분의 교수가 느낀 것은 채점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있어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전성연 교수)

서도 처음에는 10%인 57점 내외로 대부분의 대학이 결정할 줄 알았습니다. 후에 각 대학에서 발표한 點數反映率을 보고 처음에는 매우 그쪽이 작다고 느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첫번 실시로서 그 配點이 적절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 그 반영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司會 여러 선생님들의 意見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번 논술고사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10%에 훨씬 못 미치는 3~5%의 점수를 반영한 것은 대학이 그들에게 돌아온 권리 행사를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慎重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떤 제도改革이든간에 그것이 충격적인 영향을 줄 때에는 그 제도 자체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많은 문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논술고사에 대한 대학의 태도는 본 논술고사 제도의 定着化를 위한 조심스러운 자세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으로 이번 논술고사의 出題에서부터 採點過程에 이르기까지 느꼈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全成連 사실 이번 논술고사 실시에서 가장 核心의이고 중요한 문제가 바로 논술고사의 出題와 그 採點이었습니다. 각 대학마다 지난 1년간 이에 대한 研究委員會를 구성하여 많은 教授와 研究費를 투입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교수님 누구나가 모두 이 採點의 公正性 및 客觀性에 대해서 우려를 하였는데 실제 이번에 실시한 후에 대부분의 교수가 느낀 것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대학 자체에서 이번 논술고사에 대하여 많은 關心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많은 연구를 하였다는 증거도 됩니다.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로 이번 논술고사의 採點의 客觀性을 위하여 3인 이상의 教授가 한 팀이 되어 3~5일간 설정된 採點基準에 의하여 철저히 하였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논술고사 제도가 定着化할 수 있다는 밝은 展望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崔正薰 그렇습니다. 논술고사가 定着化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또 다시 대학입시제도의

혼란을 가져와 다른 제도로 바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논술고사 採點의 公正性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타난 결과는 비교적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採點者間的 變異性을 줄이기 위하여 採點위원들이 채점하기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점검하여 채점하였고, 또 한 學科에 대한 채점을 한 팀이 계속하도록 하여 채점의 信賴性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학들이 논술고사에 대한 自信感을 갖게 된 것도 이번 실시를 통해서 얻은 좋은 경험입니다.

朴鍾哲 두 분 교수님의 말씀대로 저희 대학의 경우도 지난 1년간 실제로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그 採點過程까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채점 절차에 대한 연구도 多角的으로 연구하였습니다. 물론 이번이 첫 실시여서 각 대학마다 출제된 문제들이 과연 고등학교 학생에게 적절하고 타당했던 논술문제이었는데에 대한 贊反은 어쩔 수 없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제도가 계속되면서 점차로 수정되어 가리라 봅니다. 저도 두 분의 말씀처럼 이번 논술고사의 출제 및 채점결과는 대학이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

司會 全교수님과 朴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직접 채점하신 줄 아는데 학생들의 답안지 내용이 어떠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全成連, 朴鍾哲 다른 採點委員도 같이 느낀 것이지만 일

반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用語라든가 어휘력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이었고, 또한 어떤 요령에 맞추어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는 답안지가 많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은 지난 몇 개월간 고등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앞으로 대학에서의 출제의 다양화나 고등학교의 교육이 정상화됨에 따라 없어지리라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논술고사에서 아무런 問題點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출제의 다양성이라든가, 문제의 타당성의 문제, 採點結果에 대한 보다 나은 객관성의 유지 문제라든가 앞으로 대학에서 계속 연구하여야 할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대학의 계속적인 연구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洪章鶴** 고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번 논술고사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좀 광범위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실시를 통해서 논술고사에 대한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사실 논술고사가 실시되기까지, 그간에 이에 관련된 책만도 80여 종이 나왔고 자신문마다 몇 개월씩 계속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混亂만 가져오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술고사를 大領域으로 다루기보다는 小領域으로 나누어 學科別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술고사가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논술고사가 한 과목으로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이는 本來的인 논술고사의 취지에도 어긋나지만,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시험과목을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되며, 고등학교 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崔正薰** 어떤 제도든지 마땅하지 않더라도, 특히 敎育에 관련된 문제는 당장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며 많은 문제가 표출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한번 바꾸어진 敎育제도의 效果는 최소 半世紀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논술고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많은 理論的인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經驗的이고 實證的인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만, 이번 대입제도의 定着化를 위하여는 우리 大學人들의 적극적인 參與의식이 중요하며 동시에 대학을 信賴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司會 解放** 이후 지금까지 불과 약 40년 동안 우리나라 大學入試制度에서 큼직한 네 개의 제도가 이미 등장하였습니다. 즉 大學別 考查制度, 國家 考查制度, 內申制, 그리고 論



“논술고사는 학생들을 가르쳐 보내는 교교와 학생들을 선발하여 가르치는 대학의 共同努力이 없이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중철 교수)

述 考查制度입니다. 主敎수께서 그간의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가 크게 아홉번이 바뀌어졌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평균한 제도의 수명이 4~5년이 됩니다. 그러나 1969년부터 大學別 考查와 國家 考查制度가 병행해서 1980년까지 11년이 계속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어떤 制度는 1년 내지 2년마다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일지라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내는 고등학교와 학생들을 선발하여 가르치는 대학에 忠事하는 우리 敎원들의 공동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大學入試制度가 두 敎育기관에 忠事하는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 제도는 이미 그 價値를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